

광주 세계수영대회 일부 경기장-개·폐회장 변경 검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부 종목 경기장과 개·폐막식 장소 등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회 개막을 2년 앞두고 각 종목별 특성과 경기장 여건 등을 고려해 6개 종목 경기장 중 일부를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조직위는 당초 경영과 다이빙은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은 남부대 수영장 임시풀, 하이드라이빙은 광주 시청 앞 임시수조, 수구는 진월국제테니스장 임시풀, 오픈워터는 장성호에서 각각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회 기간 평균 수온 등을 감안할 때 오픈워터의 경우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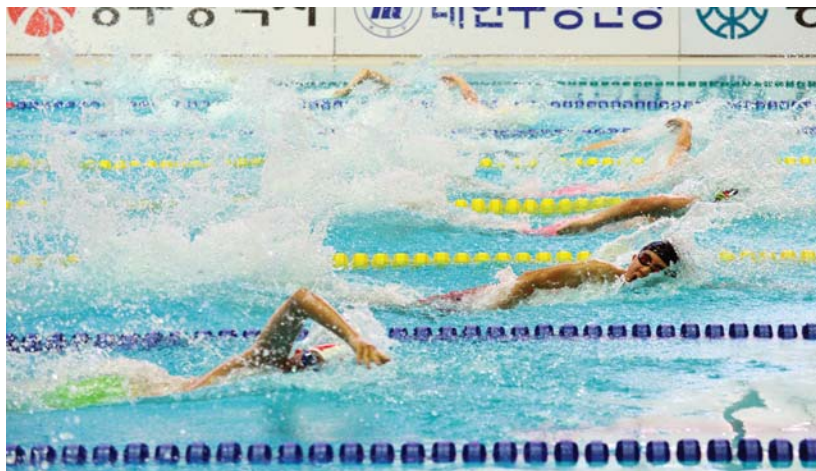
오픈워터, 적정 수온 탓에 장성호→여수로 하이드라이빙, 광주시청→금남로·문화전당 개·폐막식장 금남로, 실내체육관 등 검토

성호보다는 바닷물이 드나 드는 여수 앞 바다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오픈워터는 바다와 강, 호수 등 자연의 물 속에서 행해지는 장거리 수영경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체온 유지는 곧바로 기록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26~28도가 적정수온인데 장성호의 8월 수온은 30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수는 바닷물 유입으로 수

온 유지에 낫다"고 말했다. 세계 엑스포를 치른 여수에 비해 장성호의 주변 기반시설이 열악한 점과 종목 특성상 주변 경관이나 도시뷰가 TV나 인터넷 동영상을 타고 전 세계에 중계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수가 비교적 우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클레스쿠(Cornel Marculescu) 사무총장이 광주를 찾



았을 당시 오픈워터를 여수에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메인경기장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결국 장성호로 잠정 확정됐다. 하이드라이빙도 임시수조를 공공

기관인 광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다는 데 대해 FINA측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광주의 상징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서 여는 방안

이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조직위 측은 "2017 부다페스트 대회 오픈워터가 열리는 발라톤 호수도 부다페스트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수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FINA 측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회식과 폐막식 장소도 관심사다. 행사 연습에 여러 날이 소요되고 개최도시 상징성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원이 검토되고 있고 8월 폭우 등에 대비해 염주체육관이나 광주여대 체육관 등도 가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인호 기자

전남 이슬찬, 최효진 대신 K리그 올스타전 합류

부상으로 출전 어려워...오는 29일 베트남서 개최



전남 드래곤즈 이슬찬이 2017 K리그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워진 최효

진(전남)을 대신해 이슬찬을 발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의 핵심 수비수인 이슬찬은 광양제철중-광양제철고로 이어지는 전남 유스 시스템을 거쳐 2012년 K리그에 데뷔해 통산 62경기 4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올해 올스타전은 오는 29일 베트남 하노이 미이딘 국립경기장에서 진행된다. K리그 올스타전의 상대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다. 이들은 8월에 있을 제29회 동남아시아 게임 출전 선발팀으로, 베트남 현지 축구팬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베트남 대표팀에는 K리그 클래식 강원FC의 썬영도 합류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올스타전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스

김국영 "런던세계육상선수권, 준결승 진출 노려볼 것"

기록 단축은 주법 변경 효과...9초대 진입, 희망 있어

한국 육상 단거리의 간판스타 김국영(26·광주광역시청)이 2017 런던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김국영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헤일로 스포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국영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5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07로 결승선을 통과,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때문에 오는 8월 열리는 런던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자력으로 대회 진출 티켓을 따냈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무대에서 또 다시 기록을 단축시키겠다는 각오다.

김국영은 "현재 컨디션은 좋다. 부상 없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잘 준비하고 당일 행운을 바라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도 기록을 단축하고 싶다. 제일 중요한 건 평균기록을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평균기록을 끌어올린다면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10초07은 한 번밖에 뛰지 못한 기록이다. 여러 번 10초0대를 뛰다 보면 자연스럽게 9초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내 평균기록은 10초2 후반에서 3 정도 왔다갔다 했다. 지

금은 10초1대에서 2를 왔다갔다 한다. 평균기록이 확실히 올라갔다"고 전했다.

김국영은 "주법을 바꾼 게 주요했다. 지난 겨울부터 (주법을 바꾸기 위해) 보강훈련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인, 토종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국영은 "동양인이 결승 무대에 올라간 적이 없어서 준결승 무대만 가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1, 2위 하는 선수들은 모두 혼혈이다. 토종 한국 선수가 잘 하는 걸 보여주려고 싶다"고 부지를 불태웠다.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역량적인 부분보다 훈련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훈련 직후의 영양 섭취, 휴식 등 3박자가 골고루 맞아떨어져야 한다. 지금 오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는 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무언가를 바꾸기보다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국영은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당황스러운 소식도 전했다. 김국영은 지난 9일 일본 삿포로에서 벌어진 제30회 남부 주하이 기념 육상대회에 출전했다. 예선을 1위로 통과해 결승 무대에 올랐지만, 경기 직전 대회 운영진으로부터 결승전에 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예선을 뛠 후에 결승전에 뛠 수 없다고 하더라. 원래 그런 애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이유는 일본 선수 외 다른 나라 선수는 파이널을 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껏 그런 적이 없었는데 황당했다. 그래서 예선 전체 1위를 하기도 결승을 뛰지 못했다"고 못지 못할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뉴스스

'피겨 희망' 최다빈, 새 프로그램으로 평창행 도전

쇼트-애절·프리-경쾌함 담은 안무



한국 여자 피겨의 희망으로 떠오른 최다빈(17·과천고)이 애절하고 경쾌함을 담은 새 프로그램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도전한다.

20일 최다빈의 매니저먼트사인 울렛스포츠(대표이사 구동희)에 따르면 최다빈의 새 시즌 쇼트 프로그램은 애절한 선율의 Papa Can You Hear Me(파파 캔유 히어 미)로 확정됐다. 프리 스케이팅은 'West Side Story(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OST 곡이다.

최다빈은 쇼트 프로그램에서 서정적인 음악에 맞춰 애절하면서도 편안한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프리 스케이팅에서는 분위기가 바뀐다.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OST 가운데 느낌이 다른 두 곡(I

feel pretty·Maria)을 바탕으로 경쾌함과 웅장한 느낌을 표현한다.

쇼트 안무는 일본의 안무가 미야모토 겐지가 맡았고, 프리는 지난 시즌 사랑받은 쇼트 프로그램인 'La La Land(라라 랜드)' 안무 담당자인 니키타 미하일로프가 연출했다.

최다빈은 "중요한 시즌이라서 프로그램을 고르는데 고민이 많았는데, 쇼트는 애절한 반면 프리는 밝은 분위기, 슬픔, 웅장함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다빈은 오는 29일부터 이를 간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 챌린지 겸 평창동계올림픽 대표 1차 선발전에서 새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박소연, 이준형(이상 단국대), 김진서(한국체대)도 아쉽게 새 시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박소연은 쇼트 프로그램으로 'Black Swan(블랙스완)'을 택했다. 4년 전 'The Swan(스완)'으로 우아하면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시즌엔 'Black Swan'으로 강렬함과 애절함을 내세웠다.

프리 스케이팅에서는 지난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Aranjuez Mon Amour(아랑헤즈)'를 다시 한 번 선보인다.

이준형은 영화 '찰리 채플린' OST에 가사를 붙여 만든 'Il Volo(일볼로)'의 'Eternally(이터널리)'를 쇼트로 선택.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음악에 찰리 채플린의 희극적인 동작을 더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프리 음악은 Queen(퀸)의 명곡 'Bohemian Rhapsody(보헤미안 랍소디)'로 정해졌다.

김진서의 경우 쇼트와 프리 모두 지난 시즌과 분위기를 바꾸는데 중점을 뒀다.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크리스 만의 'Need you now(니드 유 나우)'로 이련한 스토리를 성숙하게 표현했고, 프리 스케이팅에서는 영화 '넬라 판타시아(Nella Fantasia(넬라 판타지아))'로 장엄한 분위기를 표현한다.

'기록의 사나이' 데얀, 해트트릭 최다타이 기록 달성

2007년 K리그 데뷔...통산 6번째 대기록 공동 1위



K리그와 FC서울의 살아있는 역사인 데얀이 다시 한 번 대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데얀은 지난 19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3골을 넣으며 팀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통산 6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한

데얀은 김도훈, 사샤와 함께 이 부문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데얀은 2008시즌과 2010시즌에 각각 한 차례씩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2011시즌에는 두 번이나 한 경기에서 세 골 이상 터뜨렸고, 2013년에도 한 차례 해트트릭의 기쁨을 맛봤다.

이미 김도훈과 사샤가 선수 생활을 끝낸 만큼 데얀이 현재 기세를 이어간다면 최다 해트트릭 기록자 등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얀은 2007년 K리그에 데뷔해 2011년부터 3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다. K리그에서 머문 9시즌 동안 모두 두 자릿 수 골을 터뜨리는 등 통산 167골을 기록 중이다.

한편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서울은 오는 22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한다.

뉴스스